

구마가와주쿠

구마가와주쿠는 와카사 지역과 당시 수도였던 교토를 연결하는 주요 교역로인 와카사카이도를 따라 물자 운송이 활발해지면서 번성한 역참마을이었습니다. 1589년, 정부의 칙령에 따라 이 마을은 많은 세금이 면제되었고, 그 결과 운송대리점, 운반업자 사무소, 상점, 숙박시설 등의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구마가와주쿠는 국가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역사적 분위기 속에서 1750년~1867년 사이 변화했던 역참마을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을은 가민초, 나칸초, 시몬초의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요 명소

1. 구마가와 번소

번소에 배치된 관리들은 구마가와주쿠로 드나드는 도로를 감시하며, 여행허가증을 확인하고 물품에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현재는 원래의 외관으로 복원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업무 중인 검찰관을 나타내는 장면이 재현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는 다양한 무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번소는 와카사초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구 헨미 간베에가 주택

이 건물은 구마가와와의 초대 장이었던 헨미 간베에(逸見勘兵衛, 1842년~1909년)가 소유했던 것으로, 역참마을의 부유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던 마치야 스타일을 대표하는 건물입니다. 이 시설은 전통 건축물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삼기 위해 대규모 복원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숙박시설, 카페, 기념품 가게가 입점해 있습니다.

3. 와카사 사바카이도 구마가와주쿠 자료관 슈쿠바칸

이 건물은 원래 1940년에 지어져 구마가와무라 사무소로 사용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와카사와 교토를 잇는 교역로인 사바카이도(고등어길)의 도로망 및 구마가와주쿠의 역사와 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자료관이 되었습니다. 전시품으로는 보존자료, 사진, 패널 전시, 과거 역참마을의 일상생활 및 상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4. 구라미야 오기노가 저택

오기노가는 '구라미야'라 불리며 물자 운송을 전문으로 하던 사업을 여러 세대에 걸쳐 운영해 왔습니다. 본채는 1811년경에 지어졌으며, 구마가와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마치야입니다. 인접한 물품 창고와 직원용 다락방 침실은 당시 객주 건물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이 저택은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 사바카이도 식문화 전시시설 무라타칸

이 건물은 원래 무라타가의 주택으로, 1912년에 교토에서 개업한 미술랭 3스타 요정 '기쿠노이'의 창립자인 무라타 도라키치의 집이었습니다. 기쿠노이의 3대 주인인 도라키치 손자의 협력으로 이 옛 주택은 개조되어 사바카이도라는 교역로를 따라 발전한 와카사 지역의 식문화를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6. 구마가와주쿠 체험교류시설 요시치

이 건물은 전시회, 체험교실, 강연회 및 다양한 이벤트 개최에 사용되는 휴식공간입니다. 요시치라는 이름은 구마가와주쿠에서 효행의 상징으로 알려진 요시치라는 남성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요시치는 아내와 함께 이 지역에 살았는데, 매우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부모를 극진하게 대접하며 효를 다했습니다. 오바마 번주는 이 부부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헌신에 대해 많은 포상을 내렸습니다.